



100

JAN DE NATRIS
(1917-1925)
(1928-1929)

1900
OPRICHTING VAN DE
AMSTERDAMSCHE FOOTBALL
CLUB AJAX

1911
AJAX PROMOVEERT NAAR
DE EERSTE KLASSE



02
9 771739 284009
ISSN 1739-2845
091

International Magazine of Space Design | bob |
**ALBERTO APOSTOLI | AJAX EXPERIENCE | GOOGLE
ENGINEERING HQ LONDON | REBIRTH OF SAATCHI
& SAATCHI THAILAND | LOFT APARTMENT |
BLOOMING GARDEN & FOOD CLOCK & THE
BA'NG | NESTLÉ'S CHOCOLATE FACTORY VISITING
AREA | bob COORDINATION: THORSTEN FRANCK
bob COLLECTION:
HAIR SALON**



Grimanesa Amorós: Grimanesa Amorós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with diverse interests in the fields of social history, scientific research and critical theory, which have greatly influenced her work. She often makes use of sculpture, video, and lighting to create works that illuminate our notions of personal identity and community. She utilizes her art as an agent for empowerment to involve viewers from all different backgrounds and communities. She was born in Lima, Peru and lives and works in New York City.

GOLDEN UROS, Chapelle de la Persévérance Tarascon, France, 2011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UROS ISLAND, La Biennale di Venezia, 54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ILLUMInazioni - ILLUMInations, Collateral Event Future Pass, 2011

Liz Kwon : Your work is very organic and environmental in form yet simultaneously futuristic. Where or what inspired such forms?

Grimanesa Amorós : The <Uros> series is inspired by the Uros Islands in Lake Titicaca located southeast of Peru. They are floating islets made entirely out of totora reeds, a sub-species of the giant bulrush sedge. The pre-Incan Uros, who live on forty-two handmade floating islands in Lake Titicaca, build everything out of this material - everything that ranges from houses to boats to watch towers. I created the <Uros> series to reflect the natural elegance of sea foam and totora reeds. The light sculptures maintain the traditional technique and shape of these islands. I have always worked with subject matters that relate to my personal experience.

권이선 : 당신의 작업은 매우 유기적이고 자연적 형태를 따는 동시에 미래적인 느낌을 준다. 작품의 이러한 형태들은 어디서 시작됐나?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 <우로스> 연작은 페루의 남동부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작품들은 거대한 골풀의 변종인 토토라 갈대로 만들어진 부유하는 작은 섬들이다. 잉카 제국 이전의 우로스 사람들은 티티카카 호수에 떠있는 52개의 인공 섬들에 살았으며, 집이나 선박에서부터 망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 재료로 지었다. 나는 해면의 거품과 토토라 갈대의 우아한 자연미를 묘사하여 <우로스> 연작을 만들었으며, 조명 조각물에는 이 섬들의 전통적 기법과 형상이 반영되어 있다. 나는 항상 내 경험에서 우러난 주제를 가지고 작업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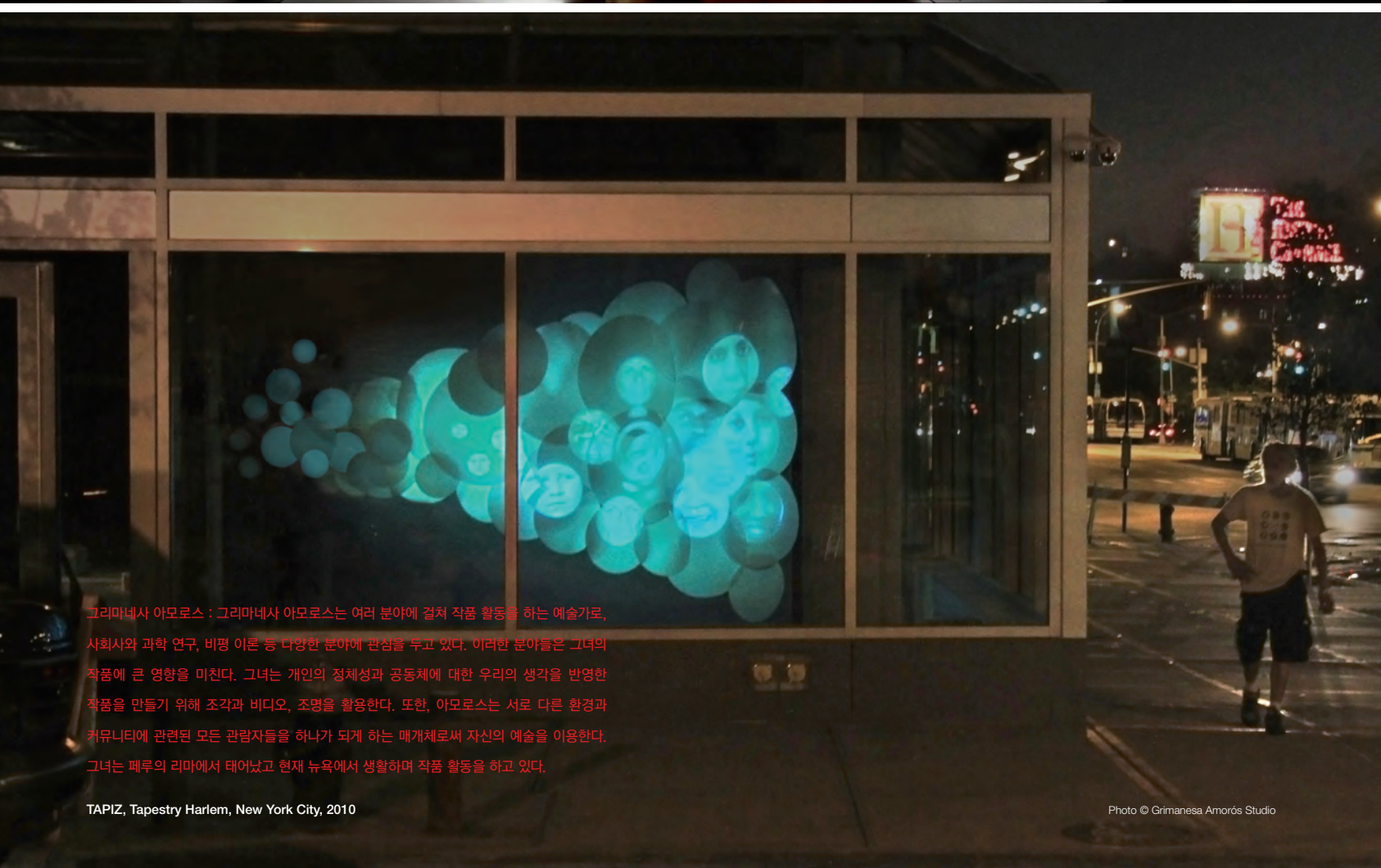
UROS HOUSE, Paul and Lulu Hilliard University Art Museum University of Louisiana at Lafayette, Louisiana, 2011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UROS HOUSE, Times Square, New York City, 2011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 그리마네사 아모로스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 사회사와 과학 연구, 비행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그녀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조각과 비디오, 조명을 활용한다. 또한, 아모로스는 서로 다른 환경과 커뮤니티에 관련된 모든 관람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로서 자신의 예술을 이용한다. 그녀는 페루의 리마에서 태어났고 현재 뉴욕에서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TAPIZ, Tapestry Harlem, New York City, 2010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Liz Kwon : It seems that the emanating light is also a significant element, as much as the circular forms of the work. I wonder what kind of technical process is used to produce such works. Also, does the spatial environment effect your decision in the choosing the colors of the light?

Grimanesa Amorós : After working with many different mediums, I felt that incorporating light would bring the magic I was looking for to my work. Light engages the viewer - my sculptures are one with the light and on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other. I prefer to work with organic shapes and use materials that are practical and best express my ideas. In my latest work, I have been using Phillips/ Color Kinetics LEDs, Lexan which is a diffusion material for my domes, silkscreen, aluminum, custom lighting sequencing, and electrical hardware. Every sequence is customized specifically for each sculpture and its site-specific location. I do location visits and study the light at the site. I study how viewers move in the space and the people that will be interacting with the piece on a daily basis. Light is important - it allows me to tell a story with much more clarity. The custom lighting sequence in each piece is carefully engineered, from each shade of color to every transition made.

Liz Kwon : What are you concerned with the most when you work on the public project that is placed in heavy pedestrian traffic area, such as <Uros House> at Times Square?

Grimanesa Amorós : For me, it's important that there's a certain type of reaction from the public - either they love it, or they hate it - but not to pass indifferent.

권이선 : 작품의 등근 형태를 비롯해 그 안에서 발하는 빛도 중요한 요소인 듯 하다. 작품들을 제작할 때 어떤 방식의 기술적 과정이 활용됐는지 궁금하다. 또한, 빛의 색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그 공간의 환경이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다.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 다양한 매체들과 작업한 후, 나는 빛을 도입함으로써 작품에서 내가 얻고자하는 마법적 분위기를 낼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빛은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내 조각물들은 빛과 함께 하나가 되고,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는 내 아이디어를 가장 잘 표현해주면서 실용적인 재료를 사용한 유기적 형태의 작업을 선호한다. 최근 작품에서 나는 필립스사의 칼라 키네틱스 LED 조명과 내 작품 속 돔에 사용했던 빛 확산 재료 렉산, 실크스크린, 알루미늄, 수작업 방식의 조명, 전기 장치 등을 활용했다. 각 조각품과 설치되는 공간에 맞춰 모든 작업 단계는 특수한 수작업 과정이 거쳐진다. 나는 설치될 자리를 찾아가 그 공간에서 빛을 연구하고, 어떻게 관람자들이 움직이는지 연구하며, 사람들이 일상적 흐름에서 작품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빛은 중요한 요소다. 빛을 통해 나는 좀 더 명확하게 작품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각 작품마다 이루어진 수작업 조명은 세심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 각 색조와 모든 변화적 양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진다.

권이선 : 보행자가 특히 많은 공공 장소에서의 설치 작업은 어떠한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가? 타임스퀘어에 설치했던 <우로스 하우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달라.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 작품이 좋다 혹은 싫다 등의 대중들로부터 오는 특정 유형의 반응이 있지만, 나는 그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UROS, tribeca ISSEY MIYAKE headquarters, New York City, 2011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UROS, tribeca ISSEY MIYAKE headquarters, New York City, 2011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RACIMO, Permanent Public Art on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s Allure of the Seas, Turku, Finland,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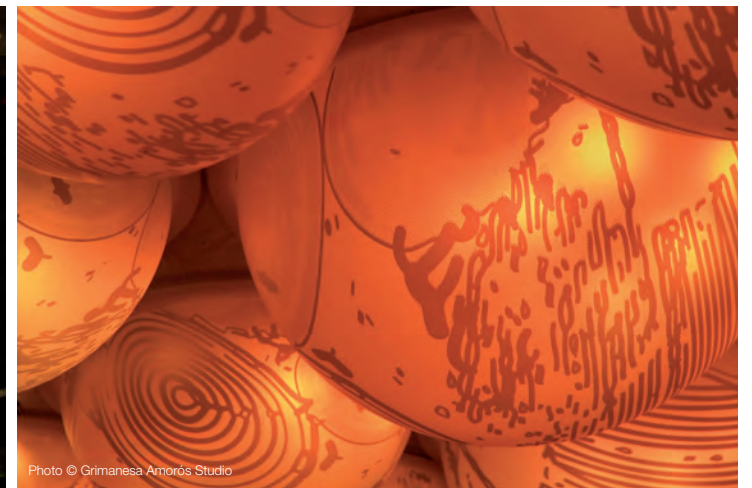


Photo © Grimanesa Amorós Studio

RACIMO, Permanent Public Art on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s Allure of the Seas, Turku, Finland, 2010

Liz Kwon :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working for commissioned projects at a retail store? I'm wondering how the collaboration with ISSEY MIYAKE was.

Grimanesa Amorós : tribeca ISSEY MIYAKE is very dear to me. I am in love with the clean and modern aesthetic used in tribeca ISSEY MIYAKE, the MIYAKE US headquarters which collaborated with Frank Gehry for their flagship store carrying all ISSEY MIYAKE collections. I created <Uros> to reflect and enhance this modern practicality. It is a merger of the old with the new, and together they create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Liz Kwon : Please tell me about your hometown, Lima. How did the city nourish your artworks? Since your move to New York, do you get inspired also by your current city?

Grimanesa Amorós : My Peruvian roots and personal history influences my work; I have many good memories of times spent at vineyards in my native Lima. My fascination of the grapes lead to my research on the natural form of the raceme. This clustering became the initial inspiration for <Racimo> - a light sculpture under the bridge of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s Allure of the Seas that has influence the current direction of my light sculpture work. Whether it is a simple shape of a grape, or an intricate element like parts of a human body, the natural world moves me. I live in New York, but growing up in Peru, my experiences there are a key component to the conceptual basis of my artwork. I also travel extensively installing my public artworks, and the different natural landscapes and lighting are a tremendous influence when I create a light sculpture. I try to communicate to the viewer the experiences I've had in Peru and throughout the world when they look at one of my light sculptures.

Interviewer : Liz Yisun Kwon/Curator, Writer, Editor : Lee HyeKyung ***Image courtesy of Grimanesa Amorós Studio

권이선 : 공공 프로젝트와 성격이 다른 상점으로부터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세이 미야케와 협업한 과정이 궁금하다.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 나는 트라이베카 이세이 미야케를 참 좋아한다. 특히, 트라이베카 이세이 미야케에서 표현된 깔끔하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이곳은 미야케의 미국 지사이자 프랑크 게리가 디자인한 이세이 미야케의 대표 매장으로 미야케의 모든 컬렉션을 담고 있다. 나는 이곳의 모던한 실용성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 <우로스>를 제작했다. 이 작품에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결합됐고, 그 특성이 한데 어울려 아주 독특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됐다.

권이선 : 당신이 자라온 고향에 대해 듣고 싶다. 그것이 당신의 작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주었는지, 또한 뉴욕으로 이주한 이래 이곳에서는 고향과 다른 어떠한 영감을 받는지 알고 싶다.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 내게 있는 페루인의 뿌리와 개인사는 작품에 영향을 준다. 나에게도 고향인 리마의 포도밭에서 보낸 시절의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 나는 포도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총상꽃차례의 자연적 형태를 연구하게 됐으며, 잎이 무리져 있는 이러한 형태는 <라시모(포도송이)>의 기본적인 영감이 됐다. <라시모>는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의 크루즈선인 얼루어 오브 더 시의 다리 아래 설치한 조명 조각물로, 최근 내가 작업하는 조명 조각품들의 작품 양상에 영향을 준다. 포도와 같은 단순한 형태나 인간의 몸을 이루는 여러 부분들같은 복잡한 요소 상관없이, 자연의 세계는 내게 영감을 준다. 나는 뉴욕에 살고 있지만, 페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경험이 내 예술작품의 개념적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다. 또한, 나는 공공 예술품을 설치하기 위해 여행을 자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자연 경관과 조명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아 조명 조각품들을 제작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 조명 조각품을 관람함으로써, 페루와 세계 곳곳에서 얻은 내 경험이 그들과 함께 나누어 졌으면 한다.

인터뷰 : 권이선/독립 큐레이터, 편집 : 이해경 기자 ***저작권은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스튜디오에 있다.